2016년 주거실태조사 주요결과

('17.4.25. 국토연구원)

1. 주거 안정성

1) 자가점유율

○ 자가점유율은 2008년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다 2014년 이후 증가함

※ (2006년) 55.6% → (2008년) 56.4% → (2010년) 54.3% → (2012년) 53.8% → (2014년) 53.6% → 56.8%

– 지역별 자가점유율은 도지역, 광역시, 수도권 순으로 높게 나타나며, 2014년에 비해 모두 증가하였음

표 Ⅲ-2. 지역별 자가점유율

(단위 : %)

구분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2006년도 주거실태조사	2008년도 주거실태조사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2010년도 주거실태조사	2012년도 주거실태조사	2014년도 주거실태조사	2016년도 주거실태조사
전국	55.6	55.6	56.4	54.2	54.3	53.8	53.6	56.8
수도권	50.2	50.2	50.7	46.4	46.6	45.7	45.9	48.9
광역시	55.1	54.8	57.4	56.6	56.6	56.3	56.5	59.9
도지역	63.7	63.8	64.0	64.1	64.2	64.3	63.8	66.7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05, 2010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자가점유율이 낮으며, 2014년에 비해 중·고소득층의 자가점유율은 각각 7.2%p, 4.1%p 증가한 반면, 저소득층의 자가점유율은 1.3%p가 하락함

표 Ⅲ-3. 소득계층별 자가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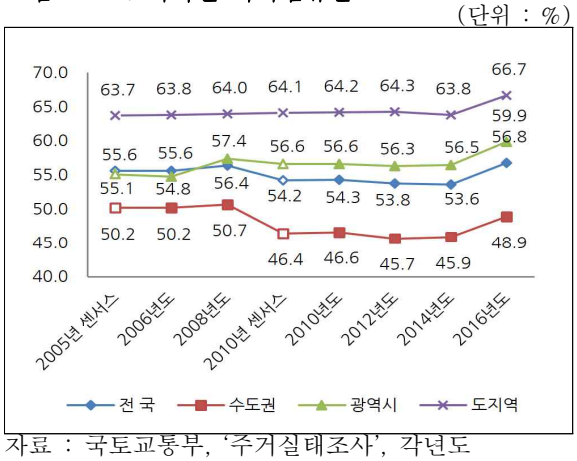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저소득층	49.7	51.9	46.9	50.4	47.5	46.2
중소득층	55.3	54.7	54.0	51.8	52.2	59.4
고소득층	67.0	69.4	69.5	64.6	69.5	73.6

자료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그림 Ⅲ-1. 지역별 자가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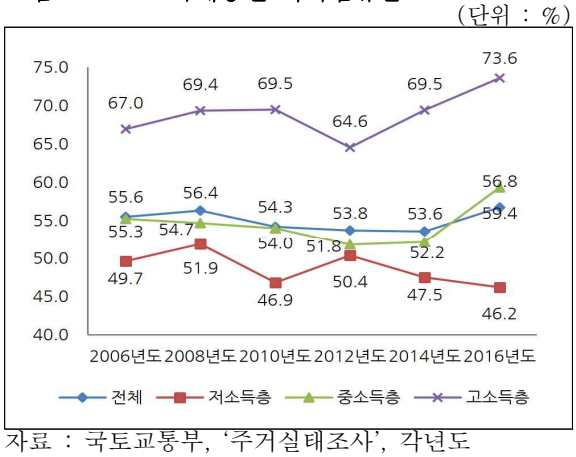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그림 Ⅲ-2. 소득계층별 자가점유율

(단위 : %)



자료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2) 자가보유율

○ 지역별로 자가보유율은 도지역, 광역시, 수도권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수도권의 경우 2006년 이후 자가보유율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나, 2016년은 2014년 대비 다소 증가함

표 Ⅲ-4. 지역별 자가보유율

(단위 : %)

구분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2006년도 주거실태조사	2008년도 주거실태조사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2010년도 주거실태조사	2012년도 주거실태조사	2014년도 주거실태조사	2016년도 주거실태조사
전국	60.3	61.0	60.9	61.3	60.3	58.4	58.0	59.9
수도권	55.9	56.8	56.6	55.9	54.6	52.3	51.4	52.7
광역시	59.0	59.3	60.3	61.7	61.2	59.0	59.9	63.1
도지역	67.5	68.1	67.7	69.1	68.3	67.2	66.8	68.9

자료 : 통계청, 2005년,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 소득계층별 자가보유율을 보면, 중·고소득층의 자가보유율은 2014년 대비 증가한 데 비해 저소득층의 자가보유율은 감소함

– 저소득층은 2014년보다 1.5%p (50.0% → 48.5%)감소하였고, 중·고소득층은 각각 5.8%p (56.4% → 62.2%), 1.6%p (77.7% → 79.3%) 상승함

표 Ⅲ-5. 소득계층별 자가보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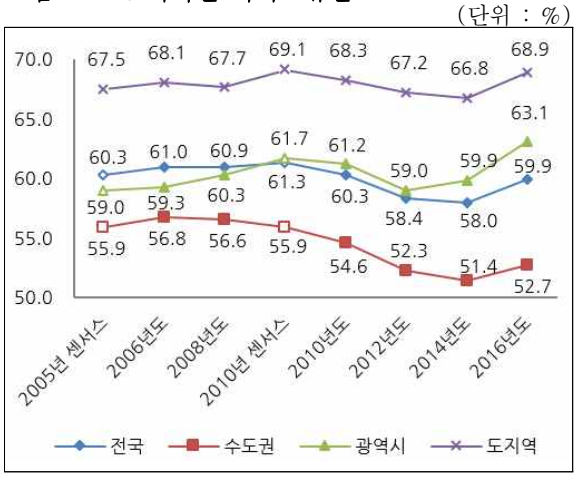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저소득층	52.6	54.2	49.4	52.9	50.0	48.5
중소득층	61.0	59.4	60.8	56.8	56.4	62.2
고소득층	76.8	78.1	80.8	72.8	77.7	79.3

자료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그림 Ⅲ-3. 지역별 자가보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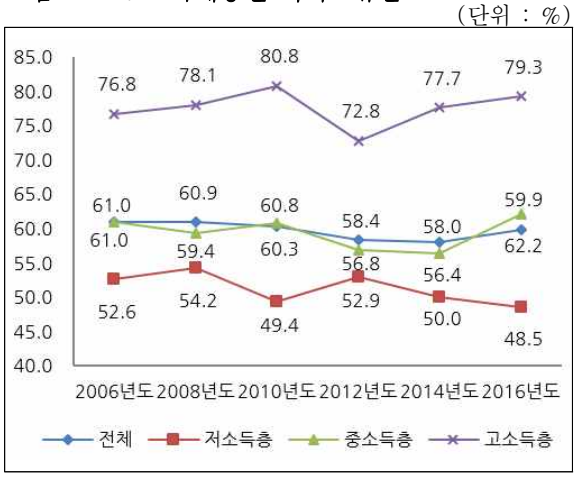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그림 Ⅲ-4. 소득계층별 자가보유율

(단위 : %)



자료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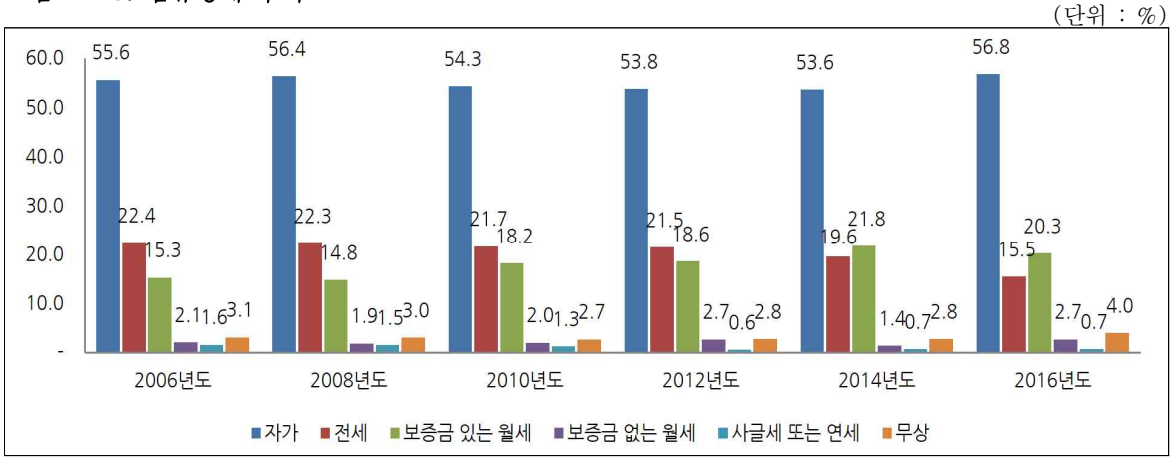
3) 점유형태

○ 전국의 전세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 월세의 비율은 2008년 이후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2016년 기준으로 자가 및 보증금 없는 월세 비율은 2014년에 비해 증가한 반면, 전세 및 보증금 없는 월세 비율은 하락하였으며 특히, 전세의 감소폭(4.1%p)이 매우 크게 나타났음

그림 Ⅱ-5. 점유형태 추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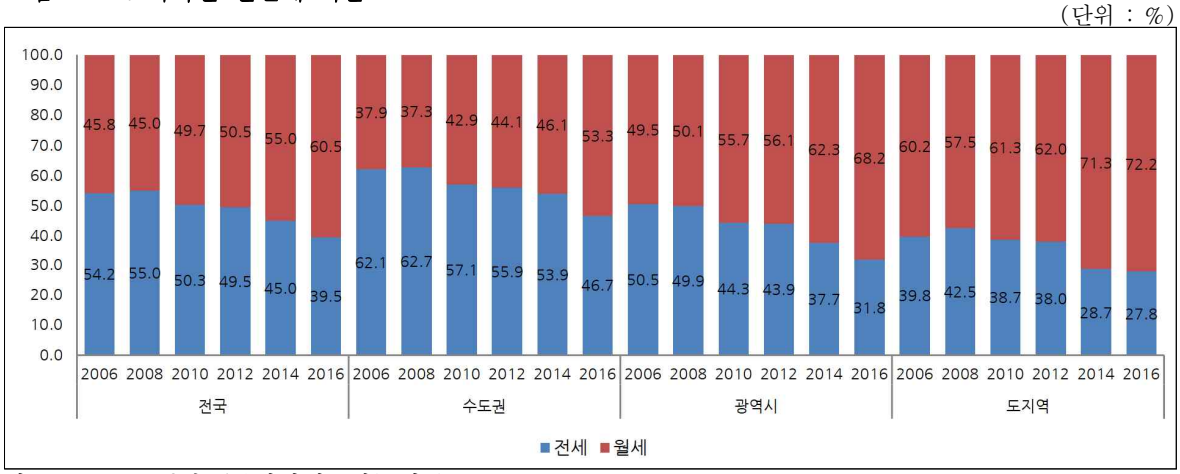


자료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 2016년 현재 임차가구 중 전세와 월세의 점유비율은 월세비율이 60.5%로 전세 39.5%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월세 비율은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림 Ⅱ-6. 지역별 전월세 비율

(단위 : %)



자료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표 Ⅱ-6. 전월세 비율

(단위 : %)

구분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계
	전세	월세	전세	월세	전세	월세	전세	월세	전세	월세	전세	월세	
전국	54.2	45.8	55.0	45.0	50.3	49.7	49.5	50.5	45.0	55.0	39.5	60.5	100.0
수도권	62.1	37.9	62.7	37.3	57.1	42.9	55.9	44.1	53.9	46.1	46.7	53.3	100.0
광역시	50.5	49.5	49.9	50.1	44.3	55.7	43.9	56.1	37.7	62.3	31.8	68.2	100.0
도지역	39.8	60.2	42.5	57.5	38.7	61.3	38.0	62.0	28.7	71.3	27.8	72.2	100.0

주 : 월세에는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연세, 일세 포함

자료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 소득계층별 점유형태를 살펴보면 소득계층이 낮을수록 월세가구로 거주하거나 무상가구로 거주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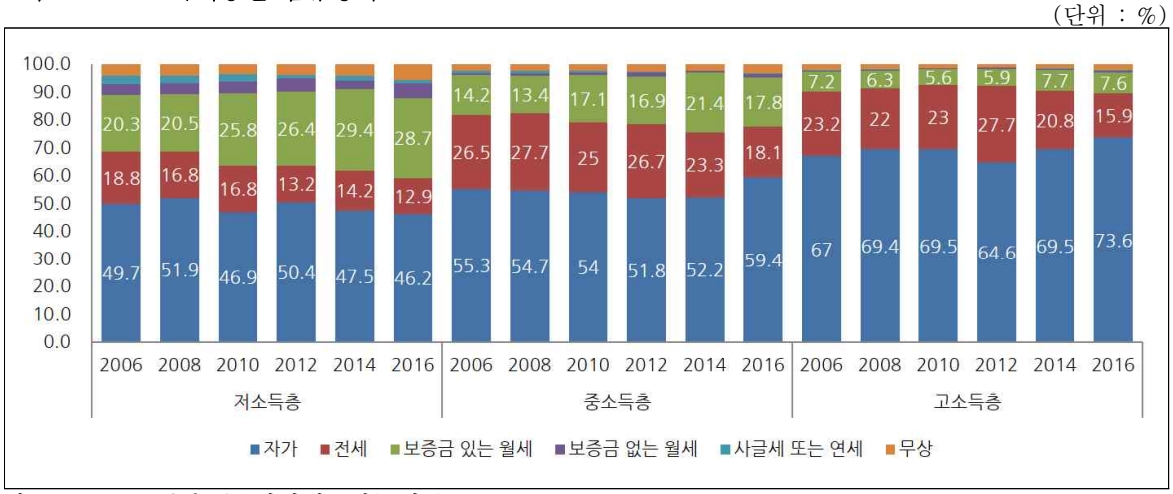
–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전세(12.9%) 보다 월세(33.9%)의 비중이 높음

○ 2014년과 비교하여 2016년에는 중소득층·고소득층의 경우 자가 비율이 증가하였으나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오히려 자가 비율이 감소하였고, 모든 소득계층에서 보증금 없는 월세 비율이 증가함

– 특히, 저소득층의 보증금 없는 월세 비율 증가폭이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두드러짐

그림 Ⅱ-7. 소득계층별 점유형태

(단위 : %)



자료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표 Ⅱ-7. 소득계층별 점유형태

(단위 : %)

구분		자가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또는 연세	무상	계
저소득층	2006	49.7	18.8	20.3	4.0	3.1	4.1	100.0
	2008	51.9	16.8	20.5	3.8	2.7	4.3	100.0
	2010	46.9	16.8	25.8	4.1	2.8	3.7	100.0
	2012	50.4	13.2	26.4	4.9	1.2	3.8	100.0
	2014	47.5	14.2	29.4	2.9	1.7	4.2	100.0
	2016	46.2	12.9	28.7	5.2	1.4	5.6	100.0
중소득층	2006	55.3	26.5	14.2	0.8	0.7	2.5	100.0
	2008	54.7	27.7	13.4	0.9	0.8	2.4	100.0
	2010	54.0	25.0	17.1	1.0	0.5	2.3	100.0
	2012	51.8	26.7	16.9	1.6	0.2	2.7	100.0
	2014	52.2	23.3	21.4	0.6	0.2	2.3	100.0
	2016	59.4	18.1	17.8	1.1	0.3	3.4	100.0
고소득층	2006	67.0	23.2	7.2	0.2	0.3	2.2	100.0
	2008	69.4	22.0	6.3	0.3	0.3	1.8	100.0
	2010	69.5	23.0	5.6	0.3	0.2	1.4	100.0
	2012	64.6	27.7	5.9	0.5	0.1	1.2	100.0
	2014	69.5	20.8	7.7	0.2	0.2	1.6	100.0
	2016	73.6	15.9	7.6	0.6	0.1	2.2	100.0

주 : 기 공표된 2012년의 월세가구 비율에는 '연세' 거주가구 비율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시계열 비교를 위해 2012년 월세가구 비율에 연세로 거주하는 가구 비율을 포함하였으므로 기존 공표자료와 차이가 있음

자료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4) 주거환경 만족도

○ 2016년 현재 전반적인 주거환경 만족도는 2.93점(4점 만점)으로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함

– 지역별 전반적인 주거환경 만족도는 수도권(2.96점), 광역시(2.91점), 도지역(2.90점)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Ⅲ-8. 주거환경 만족도

(단위 : 점)

구분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전체		2.86		2.75		2.84		2.83		2.86		2.93	
지역	수도권	2.84		2.75		2.82		2.83		2.85		2.96	
	광역시	2.87		2.79		2.84		2.90		2.89		2.91	
	도지역	2.88		2.74		2.88		2.78		2.85		2.90	
소득계층	저소득층	2.83		2.70		2.78		2.74		2.78		2.86	
	중소득층	2.86		2.76		2.84		2.84		2.87		2.94	
	고소득층	2.93		2.86		2.98		2.99		3.00		3.05	
점유형태	자가	2.91		2.80		2.92		2.89		2.91		2.97	
	전세	2.81	2.80	2.72	2.70	2.78	2.75	2.81	2.77	2.83	2.80	2.90	2.88
	보증금 있는 월세	2.81		2.71		2.74		2.77		2.79		2.89	
	보증금 없는 월세	2.68		2.50		2.61		2.52		2.69		2.75	
	무상	2.79		2.70		2.80		2.70		2.76		2.86	

주1 : 2006년, 2008년, 2010년, 2014년 2016년도는 4점 척도, 2012년은 5점척도로 조사

주2 : 2012년은 4점 척도로 환산함

주3 : 일세, 사글세 또는 연세는 보증금 없는 월세에 포함하여 계산함

자료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2. 주거비부담 및 주택마련

1)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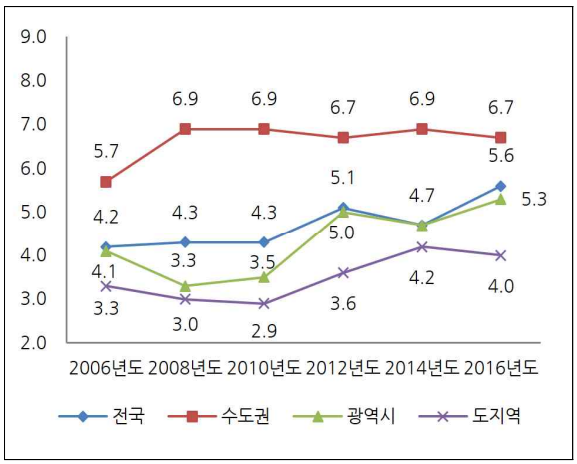
○ 2016년 전국 PIR은 중위수 기준으로 5.6배로 2014년 대비 증가함

○ 2016년 자가가구 전체 PIR과 광역시의 PIR은 2014년에 비해 상승한 반면, 수도권과 도지역 자가가구의 PIR은 다소 감소함

○ 2016년 소득계층별 PIR(중위수 기준)을 살펴보면 저소득층의 PIR은 9.3배로 중소득층 5.6배, 고소득층 5.0배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

그림 Ⅱ-8. 지역별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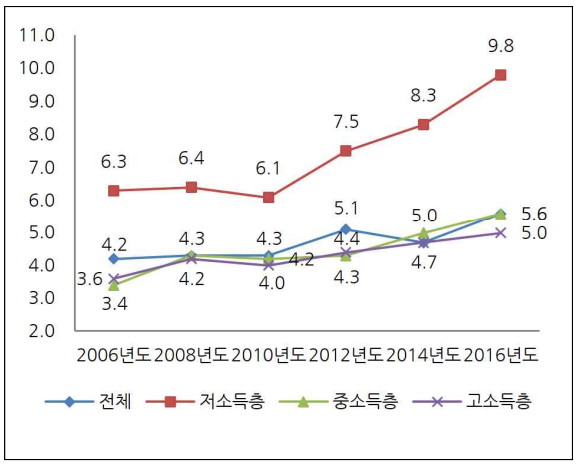
(단위 : 배)



자료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그림 Ⅱ-9. 소득계층별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단위 : 배)



자료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표 Ⅱ-9.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

(단위 : 배)

구분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전체		중위수	4.2	4.3	4.3	5.1	4.7	5.6
		평균	6.0	6.0	5.6	7.6	5.7	6.3
지역	수도권	중위수	5.7	6.9	6.9	6.7	6.9	6.7
		평균	8.1	8.5	7.9	10.1	7.1	7.6
	광역시	중위수	4.1	3.3	3.5	5.0	4.7	5.3
		평균	4.2	4.0	4.1	7.1	5.1	5.7
	도지역	중위수	3.3	3.0	2.9	3.6	4.2	4.0
		평균	3.4	3.3	3.1	5.4	4.1	4.7
소득계층	저소득층	중위수	6.3	6.4	6.1	7.5	8.3	9.8
		평균	10.9	9.9	9.2	11.3	11.2	11.6
	중소득층	중위수	3.4	4.3	4.2	4.3	5.0	5.6
		평균	5.4	5.6	5.7	5.5	5.8	6.2
	고소득층	중위수	3.6	4.2	4.0	4.4	4.7	5.0
		평균	5.3	5.2	4.7	5.4	4.5	5.0

자료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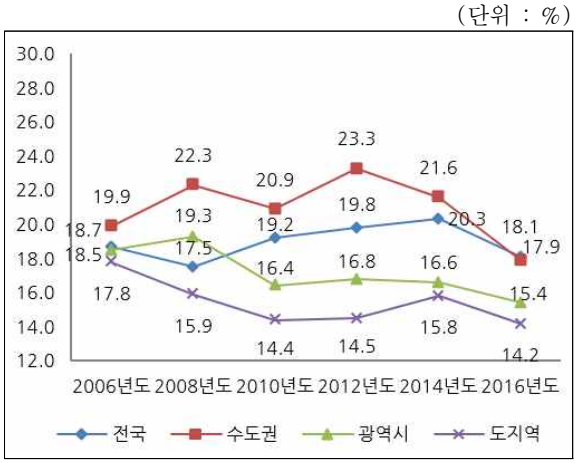
2)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

○ 2016년 전체 RIR은 중위수 기준으로 18.1%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7.9%로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광역시 15.4%, 도지역 14.2%로 나타남

○ 2016년 소득계층별 RIR을 살펴보면 저소득층의 RIR은 23.1%로 중소득층 14.9%, 고소득층 19.0%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

그림 Ⅱ-10. 지역별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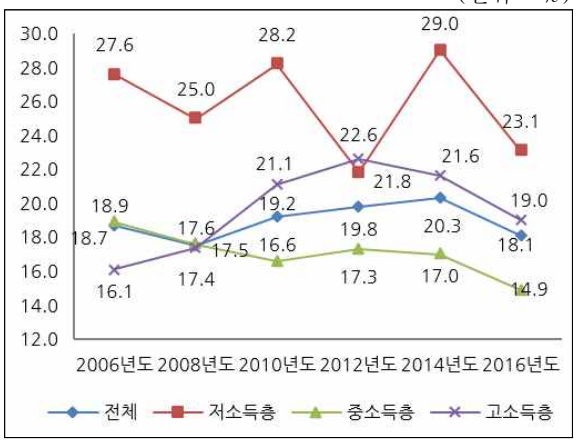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그림 Ⅱ-11. 소득계층별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단위 : %)



자료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표 Ⅱ-10.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

(단위 : %)

구분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전체		중위수	18.7	17.5	19.2	19.8	20.3	18.1
		평균	22.9	22.8	23.1	26.4	24.2	21.4
지역	수도권	중위수	19.9	22.3	20.9	23.3	21.6	17.9
		평균	25.3	26.1	26.4	30.5	27.4	24.6
	광역시	중위수	18.5	19.3	16.4	16.8	16.6	15.4
		평균	20.1	19.5	19.4	22.0	20.5	16.9
	도지역	중위수	17.8	15.9	14.4	14.5	15.8	14.2
		평균	18.5	16.4	16.2	19.3	17.3	15.1
소득 계층	저소득층	중위수	27.6	25.0	28.2	21.8	29.0	23.1
		평균	36.3	30.9	31.1	33.6	34.1	26.7
	중소득층	중위수	18.9	17.6	16.6	17.3	17.0	14.9
		평균	20.7	21.4	21.4	20.3	23.1	18.9
	고소득층	중위수	16.1	17.4	21.1	22.6	21.6	19.0
		평균	18.5	20.3	21.0	24.4	21.2	20.6

주 : 월세 전환율(월세이율)은 2006년 11.88%에서 2008년 11.76%, 2010년 11.52%, 2012년 10.44%, 2014년 9.36%, 2016년 6.7%로 지속적으로 하락함[1)]

자료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3) 최초 주택마련 소요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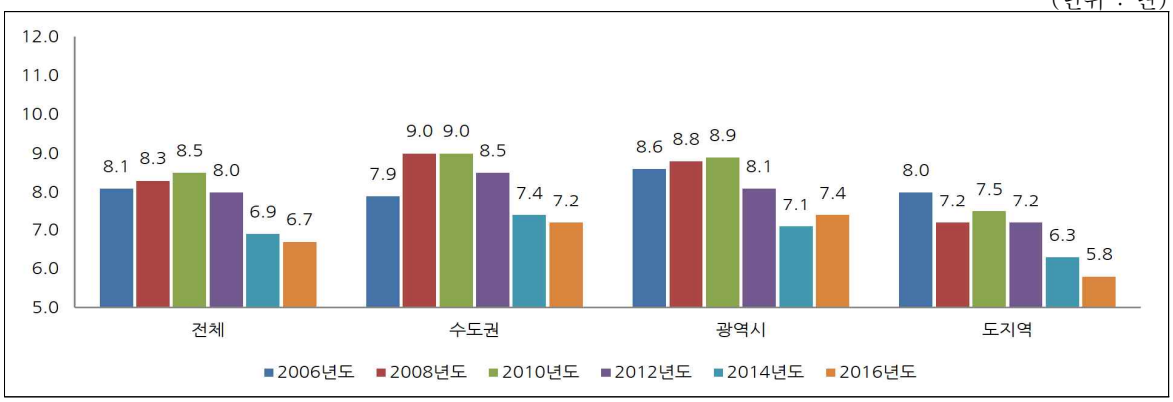
○ 2016년 기준으로 가구주가 된 이후 최초주택을 마련하는데 소요된 기간은 평균 6.7년으로 2014년 6.9년에 비해 단축되었음

– 지역별로 최초주택 마련 소요연수가 3년 미만인 가구 비율은 도지역이 52.3%로 가장 높았고 광역시 39.3%, 수도권 37.3% 순으로 나타남

– 최초 주택마련 평균 소요연수는 도지역이 5.8년으로 가장 짧았고 수도권과 광역시는 각각 7.2년, 7.4년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그림 Ⅲ-12. 지역별 최초 주택마련 평균 소요연수 추이

(단위 : 년)



자료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1) 연도별 월세이율(국민은행, '주택가격조사', 2006.10, 2008.10, 2010.08); 한국감정원, '월세동향조사', 2012.07, 2014.08, 2016.08)

(단위 : %)

구분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월세이율	연	11.88	11.76	11.52	10.44	9.36	6.70
	월	0.99	0.98	0.96	0.87	0.78	0.56

표 Ⅲ-11. 최초 주택마련 소요연수

(단위 : 년)

구분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전체		8.1	8.3	8.5	8.0	6.9	6.7
지역	수도권	7.9	9.0	9.0	8.5	7.4	7.2
	광역시	8.6	8.8	8.9	8.1	7.1	7.4
	도지역	8.0	7.2	7.5	7.2	6.3	5.8
소득계층	저소득층	10.3	10.0	10.3	10.1	8.1	7.9
	중소득층	7.3	7.6	8.1	7.5	6.5	6.2
	고소득층	6.1	6.9	7.0	7.4	6.1	6.0

자료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3. 주거이동성

1) 평균 거주기간

○ 전국적으로 평균 거주기간은 7.7년으로, 지역별로 보면 도지역, 광역시, 수도권 순으로 평균 거주기간이 길어짐

– 수도권과 광역시는 2006년 이후 점차 증가하다가 2014년 감소한 이래 2016년 현재 각각 6.4년, 7.4년으로 나타남

– 도지역에서의 평균 거주기간은 연도별로 수도권과 광역시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며, 2016년에는 9.9년으로 2014년 대비하여 다소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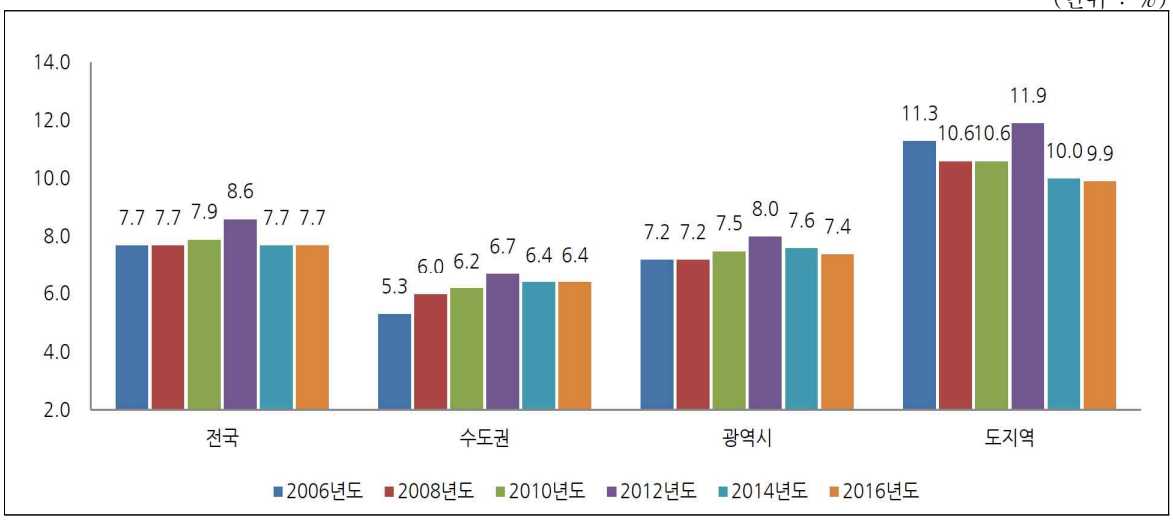
○ 소득계층별로 보면 저소득층일수록 평균 거주기간이 길어짐

– 2016년 현재 저소득층의 경우 25년 이상 거주가구 비율이 9.9%로 다른 계층에 비해 높게 나타남

– 한편, 1년 미만 거주비율도 저소득층이 13.6%로 중소득층 12.2%, 고소득층 9.6%에 비해 높음

그림 Ⅲ-13. 지역별 현재주택 거주기간

(단위 : %)



자료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2) 주거이동률

최근 2년 내 주거이동률

○ 최근 2년 내 이사경험이 있는 가구 비율은 2014년 이후 증가추세로 전환되어 2016년은 36.9%로 2014년에 비해 0.3%p 증가함

– 지역별로는 2014년 대비 도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광역시에서 증가하였으며, 광역시의 경우 2014년 대비 2016년에 2.0%p 증가함

– 시·도별로 이사가구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도지역 중 경북(25.7%)이며, 가장 높은 지역은 수도권 중 서울(42.3%)으로 나타남

표 Ⅱ-12. 시·도별 최근 2년 내 주거이동률

(단위 : %)

구분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전국	37.5	35.2	35.2	32.2	36.6	36.9
수도권	44.4	40.8	40.1	36.9	40.3	40.9
광역시	34.5	33.3	33.9	32.3	35.1	37.1
도지역	29.4	28.2	28.8	24.9	32.0	30.8

자료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현재주택으로 이사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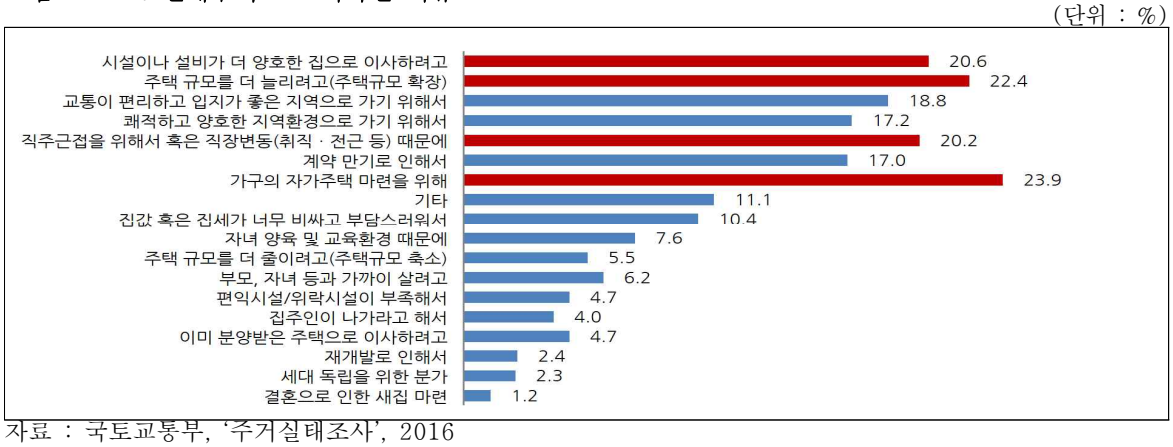
○ 이사한 경험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현재주택으로 이사한 이유를 살펴보면 '내 집(자가주택) 마련을 위해' 23.9%, '주택규모를 더 늘리려고' 22.4% 등 자가주택 마련 또는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수도권에서는 계약만기(23.6%) 또는 자가주택 마련(21.2%)으로 인한 이동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광역시에서는 자가주택 마련(29.8%)을 위해 이동하는 가구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지역에서는 주택규모 확장(27.8%)을 위한 이동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계약만기 및 집값·집세 부담으로 인한 비자발적인 이동은 수도권에서 36.6%, 광역시에서 19.9%, 도지역에서 16.7%로 나타나 수도권의 주거안정성이 타 지역에 비해 낮은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Ⅱ-14. 현재주택으로 이사한 이유

(단위 : %)



자료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2016

표 Ⅱ-13. 지역별 현재주택으로 이사한 이유

(단위 : %)

이유	전국		수도권		광역시		도지역	
	2014	2016	2014	2016	2014	2016	2014	2016
결혼으로 인해 주택을 마련하려고	1.2	0.8	1.4	0.8	1.5	0.5	0.8	1.2
세대 독립을 위해 분가하려고	2.3	2.4	2.5	2.8	1.6	2.3	2.5	2.0
내 집(자가주택) 마련을 위해	17.2	**23.9**	14.3	21.2	18.8	**29.8**	20.9	24.2
이미 분양받은 주택으로 이사하려고(신축 및 소유주택 포함)	4.7	4.5	5.4	4.6	5.6	5.4	2.9	3.8
집값 혹은 집세가 너무 비싸고 부담스러워서	8.8	10.4	10.5	13.0	7.3	7.9	6.8	7.7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5.0	4.0	5.8	6.0	4.8	2.3	3.9	1.8
계약 만기로 인해서	17.9	17.0	21.4	**23.6**	15.8	12.0	13.2	9.0
재개발로 인해서	2.4	2.8	2.8	3.0	2.7	2.9	1.7	2.2
시설이나 설비가 더 양호한 집으로 이사하려고	**24.9**	20.6	22.8	17.1	28.3	22.6	26.3	25.4
주택규모를 더 늘리려고(주택규모 확장)	**24.2**	**22.4**	22.5	19.0	24.5	23.2	27.0	**27.8**
주택규모를 더 줄이려고(주택규모 축소)	5.4	5.5	6.2	5.1	5.3	6.9	4.1	5.2
부모, 자녀 등과 가까이 살려고	5.3	6.2	5.3	7.3	5.0	3.7	5.5	5.9
직주근접을 위해서 혹은 직장변동(취직 · 전근 등) 때문에 (개인사업 등으로 인한 이사 포함)	18.1	20.2	17.3	17.9	15.2	20.1	21.3	24.2
교통이 편리하고 입지가 좋은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19.6	18.8	18.8	19.3	22.4	22.9	18.9	15.1
자녀 양육 및 교육환경 때문에	7.7	7.6	8.3	7.6	6.9	8.4	7.1	6.9
편익시설/위락시설이 부족해서	5.3	4.7	4.0	3.8	5.7	6.7	7.1	4.9
쾌적하고 양호한 지역환경으로 가기 위해서	19.2	17.2	17.6	16.1	21.9	13.9	20.1	21.3
기타	10.8	11.1	12.9	11.8	6.7	8.5	10.1	11.5
계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주 : 이사한 경험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함
자료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3) 이사계획

이사계획

○ 2016년 전체가구 중 이사의향이 있는 가구는 13.2%로 2014년에 비해 3.2%p 감소함

표 Ⅱ-14. 이사의향 및 이사계획

(단위 : %)

구분			계획이 있음				계획이 없음	잘 모르겠음	계
				2년 미만	2~5년	5년 초과			
전체		2014	16.4	9.3	5.7	1.4	72.5	11.1	100.0
		2016	13.2	7.7	4.2	1.2	76.8	10.0	100.0
지역	수도권	2014	20.8	11.8	7.4	1.7	63.0	16.2	100.0
		2016	16.0	9.3	5.5	1.2	70.1	13.9	100.0
	광역시	2014	12.1	6.7	4.2	1.2	83.6	4.3	100.0
		2016	11.2	6.8	3.1	1.3	83.3	5.5	100.0
	도지역	2014	12.4	7.2	4.1	1.1	80.0	7.6	100.0
		2016	10.2	6.0	2.9	1.3	82.8	7.1	100.0

자료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이사계획 이유

○ 이사의향이 있는 가구 중 5년 내 이사계획이 있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이사를 계획하는 이유를 질문함

○ 이사를 계획하는 이유는 '직주근접을 위해서 혹은 직장 변동 때문에' 27.0%, '교통이 편리하고 입지가 좋은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22.0%, '계약 만기로 인해서' 22.0% 등으로 직장문제 및 주거환경 개선, 계약만료 등 다양하게 나타남

– 지역별로 이사계획 이유를 살펴보면 직장문제로 인한 이사계획이 모든 지역에서 높은 비율로 나타남

표 Ⅱ-15. 지역별 5년 내 이사계획 이유

(단위 : %)

이유	전국		수도권		광역시		도지역	
	2014	2016	2014	2016	2014	2016	2014	2016
결혼으로 인해 주택을 마련하려고	1.7	1.9	1.9	1.7	1.5	1.3	1.2	2.8
세대 독립을 위해 분가하려고	2.3	1.7	2.4	1.2	1.2	2.7	2.5	2.4
내 집(자가주택) 마련을 위해	5.7	10.9	4.7	10.7	7.5	14.9	7.1	8.7
이미 분양받은 주택으로 이사하려고(신축 및 소유주택 포함)	2.3	2.7	2.5	2.7	2.8	3.4	1.6	2.3
집값 혹은 집세가 너무 비싸고 부담스러워서	10.4	10.2	11.4	12.5	9.2	8.2	8.5	5.8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4.5	3.7	4.6	4.8	4.1	1.7	4.5	2.5
계약 만기로 인해서	**24.6**	**22.0**	27.9	**25.3**	17.2	19.7	20.5	15.3
재개발로 인해서	2.5	4.3	2.9	4.3	2.2	7.8	1.8	2.1
시설이나 설비가 더 양호한 집으로 이사하려고	20.8	19.0	20.6	16.8	20.9	**24.4**	21.1	20.9
주택규모를 더 늘리려고(주택규모 확장)	17.4	14.8	16.8	15.1	16.6	13.8	19.6	15.0
주택규모를 더 줄이려고(주택규모 축소)	5.5	7.0	5.7	5.8	7.7	7.9	3.6	9.3
부모, 자녀 등과 가까이 살려고	6.1	5.2	6.0	5.6	7.4	4.3	5.6	4.7
직주근접을 위해서 혹은 직장변동(취직·전근 등) 때문에 (개인사업 등으로 인한 이사 포함)	**27.4**	**27.0**	25.3	**24.0**	25.0	**23.4**	34.8	**36.8**
교통이 편리하고 입지가 좋은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18.1	**22.0**	17.1	22.3	21.8	18.9	18.5	**23.3**
자녀 양육 및 교육환경 때문에	10.5	11.9	9.9	11.8	11.6	14.8	11.3	10.1
편익시설/위락시설이 부족해서	4.5	5.2	4.3	4.7	6.2	8.3	4.3	4.2
쾌적하고 양호한 지역환경으로 가기 위해서	19.3	16.3	18.8	17.3	24.9	13.1	17.0	16.1
기타	16.3	14.1	17.2	13.4	12.4	11.2	16.5	17.7
계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주 : 이사계획 있다는 응답자 중 5년 내에 이사계획이 있다는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함
자료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표 Ⅲ-16. 평균 거주기간

(단위 : 년)

구분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전체		7.7	7.7	7.9	8.6	7.7	7.7
지역	수도권	5.3	6.0	6.2	6.7	6.4	6.4
	광역시	7.2	7.2	7.5	8.0	7.6	7.4
	도지역	11.3	10.6	10.6	11.9	10.0	9.9
소득계층	저소득층	10.3	10.6	10.3	11.5	10.1	9.3
	중소득층	5.8	6.0	6.6	6.8	6.5	6.6
	고소득층	5.5	5.6	6.2	6.6	6.4	6.7

자료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4. 주거수준

1)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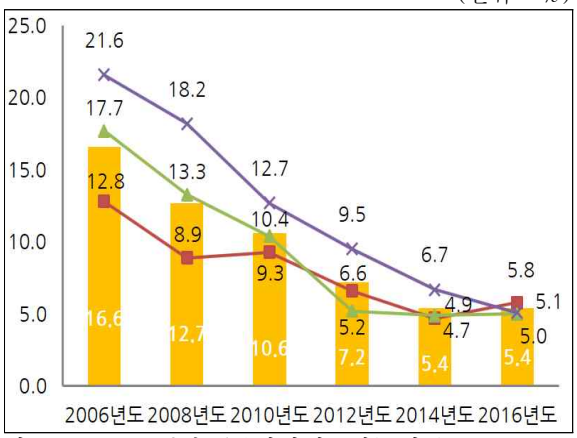
○ 2016년 전국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5.4%로 2014년과 동일하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수는 102.7만가구로 2014년 대비 다소 증가함

– 시설기준, 침실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나 면적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2014년에 비해 증가하였음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중 도지역의 비율은 2014년과 비교하여 1.6%p가 감소한 5.1%, 수도권과 광역시는 각각 1.1%p, 0.1%p가 증가한 5.8%, 5.0%를 나타냄

그림 Ⅲ-15. 지역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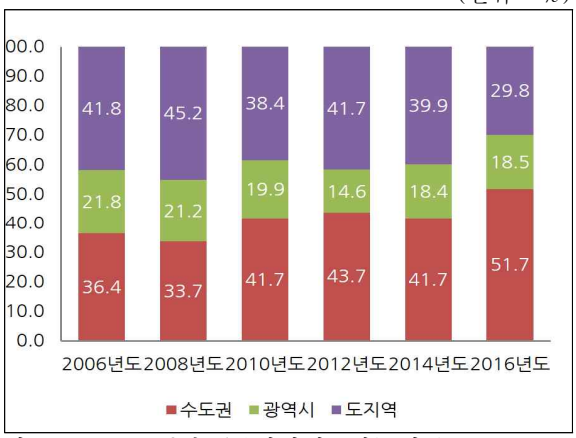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그림 Ⅲ-17.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지역별 분포

(단위 : %)



자료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표 Ⅲ-17. 지역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단위 : %)

구분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미달가구 비율	전국기준 미달가구 비율	미달가구 비율	전국기준 미달가구 비율	미달가구 비율	전국기준 미달가구 비율	미달가구 비율	전국기준 미달가구 비율	미달가구 비율	전국기준 미달가구 비율	미달가구 비율	전국기준 미달가구 비율
전국	16.6	100.0	12.7	100.0	10.6	100.0	7.2	100.0	5.4	100.0	5.4	100.0
수도권	13.2	36.4	9.3	33.7	9.3	41.7	6.6	43.7	4.7	41.7	5.8	51.7
광역시	17.4	21.8	12.9	21.2	10.4	19.9	5.2	14.6	4.9	18.4	5.0	18.5
도지역	21.4	41.8	17.7	45.2	12.7	38.4	9.5	41.7	6.7	39.9	5.1	29.8

자료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2) 1인당 평균 주거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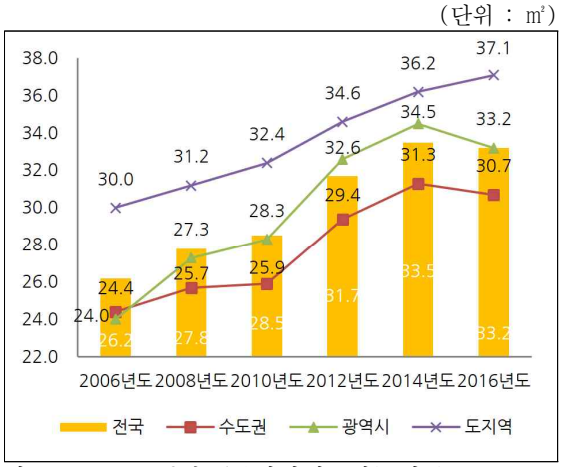
○ 1인당 주거면적은 2006년 이후 증가추세로 2016년 현재 1인당 주거면적 33.2㎡로 2014년의 33.5㎡와 유사한 수준임

–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1인당 주거면적이 가장 좁고, 광역시, 도지역 순으로 넓어짐

– 소득계층별 1인당 주거면적은 저소득층의 경우가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넓게 나타남

그림 Ⅲ-18. 지역별 1인당 평균 주거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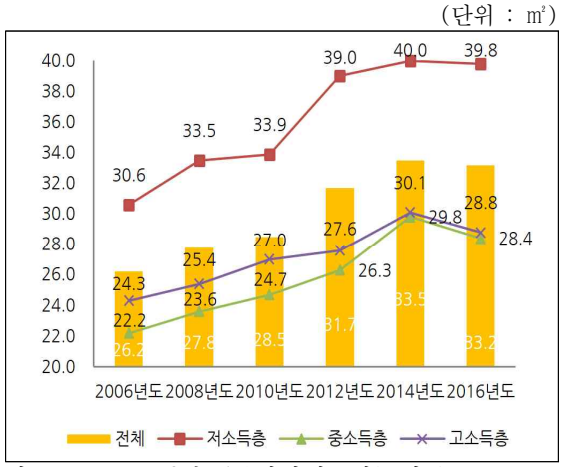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그림 Ⅲ-19. 소득계층별 1인당 평균 주거면적

(단위 : ㎡)



자료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표 Ⅲ-18. 평균 주거면적

(단위 : ㎡)

구분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가구당	1인당	가구당	1인당	가구당	1인당	가구당	1인당	가구당	1인당	가구당	1인당
전체		67.3	26.2	69.3	27.8	68.7	28.5	78.1	31.7	71.4	33.5	70.1	33.2
지역	수도권	67.0	24.4	68.9	25.7	66.6	25.9	79.0	29.4	70.9	31.3	68.4	30.7
	광역시	64.5	24.0	68.9	27.3	70.4	28.3	80.8	32.6	74.5	34.5	70.3	33.2
	도지역	69.5	30.0	70.1	31.2	70.8	32.4	75.1	34.6	70.2	36.2	72.7	37.1
소득계층	저소득층	57.7	30.6	59.6	33.5	56.4	33.9	67.9	39.0	57.7	40.0	58.3	39.8
	중소득층	68.4	22.2	69.8	23.6	69.8	24.7	79.7	26.3	72.7	29.8	72.0	28.4
	고소득층	85.3	24.3	88.4	25.4	90.4	27.0	95.8	27.6	94.9	30.1	91.1	28.8

자료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5. 주거의식과 가치관

주택보유의식

○ 2016년 전국적으로 내 집 마련이 꼭 필요하다는 응답은 82.0%로 2014년 79.1%에 비해 증가함

– 지역별로는 도지역, 광역시, 수도권 순으로 내 집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아짐

– 2014년에 비해 수도권(73.5% → 76.4%)과 광역시(79.8% → 86.6%)에서는 주택보유의식이 하락한 반면, 도지역(87.3% → 87.5%)에서는 증가함

○ 소득계층별 주택보유인식을 살펴보면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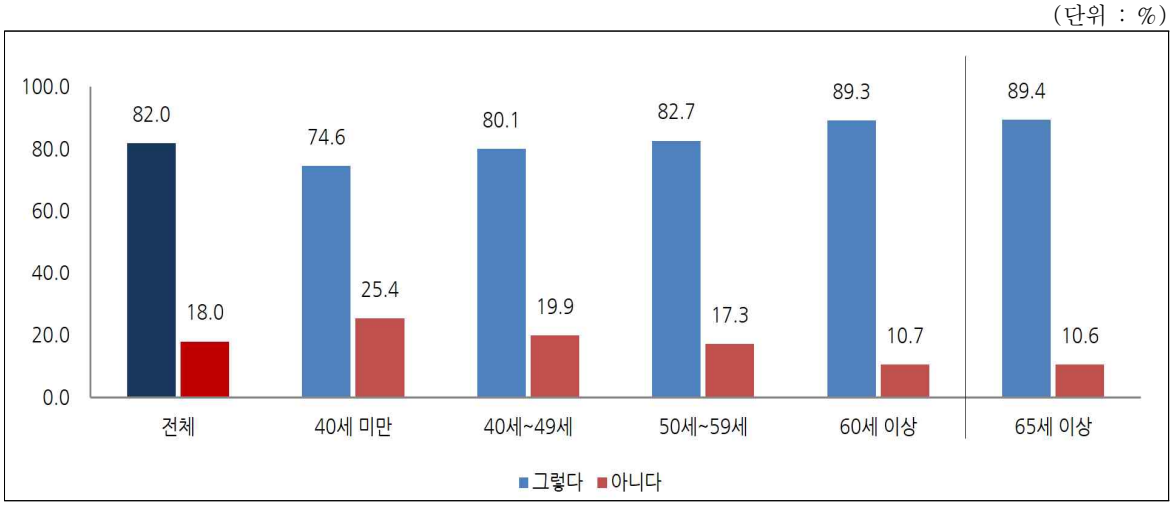
○ 점유형태별로는 자가, 무상,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순으로 주택보유의식이 높게 나타남

– 2014년 비해 2016년 주택보유의식은 자가, 전세에서 증가했으나 월세, 무상 가구에서 감소함

○ 가구주의 연령이 낮아질수록 주택보유의식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4년 대비 전 연령에서 내 집 마련이 꼭 필요하다는 인식이 증가함

그림 Ⅱ-20. 가구주 연령별 주택보유의식

(단위 : %)



자료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2016

표 Ⅱ-19. 주택보유의식

(단위 : %)

구분		2010			2014			2016		
		그렇다	아니다	계	그렇다	아니다	계	그렇다	아니다	계
전체		83.7	16.4	100.0	79.1	20.9	100.0	82.0	18.0	100.0
지역	수도권	81.8	18.2	100.0	73.5	26.5	100.0	76.4	23.6	100.0
	광역시	83.3	16.7	100.0	79.8	20.2	100.0	86.6	13.4	100.0
	도지역	86.6	13.4	100.0	87.3	12.7	100.0	87.5	12.5	100.0
소득계층	저소득층	83.9	16.1	100.0	77.9	22.1	100.0	78.1	21.9	100.0
	중소득층	83.4	16.6	100.0	79.1	20.9	100.0	83.6	16.4	100.0
	고소득층	83.8	16.2	100.0	81.7	18.3	100.0	86.9	13.1	100.0
점유형태	자가	89.6	10.4	100.0	90.4	9.6	100.0	93.6	6.4	100.0
	전세	77.2	22.8	100.0	64.0	36.0	100.0	70.1	29.9	100.0
	보증금 있는 월세	74.9	25.1	100.0	65.2	34.8	100.0	63.7	36.3	100.0
	보증금 없는 월세	78.6	21.4	100.0	74.5	25.5	100.0	61.0	39.0	100.0
	무상	81.5	18.5	100.0	80.4	19.6	100.0	74.2	25.8	100.0
가구주연령	40세 미만	79.9	20.1	100.0	73.3	26.7	100.0	74.6	25.4	100.0
	40세~49세	80.3	19.7	100.0	75.2	24.8	100.0	80.1	19.9	100.0
	50세~59세	85.1	14.9	100.0	80.8	19.2	100.0	82.7	17.3	100.0
	60세 이상	88.3	11.7	100.0	85.9	14.1	100.0	89.3	10.7	100.0
	65세 이상	88.3	11.7	100.0	86.7	13.3	100.0	89.4	10.6	100.0

자료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6. 대출금 등 상환 부담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 부담정도

○ 2016년 전체가구의 66.5%는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수도권 71.0%, 광역시 62.1%, 도지역 61.4%로 나타나 수도권에 거주하는 가구가 가장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음

○ 소득계층별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의 부담정도는 소득이 낮을수록 부담을 느끼는 가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저소득층은 73.4%가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이 부담이라고 응답하였고 중소득층은 65.6%, 고소득층은 55.6%로 나타났음

표 Ⅱ-20.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 부담정도

(단위 : %)

구분			매우 부담됨	조금 부담됨	별로 부담되지 않음	전혀 부담되지 않음	해당없음	계
전체		2014	29.8	41.9	14.7	3.4	10.2	100.0
		2016	25.9	40.6	13.7	1.9	18.0	100.0
지역	수도권	2014	28.4	44.4	16.4	4.1	6.7	100.0
		2016	29.4	41.6	13.0	1.0	15.0	100.0
	광역시	2014	27.3	42.9	15.3	2.5	12.1	100.0
		2016	25.4	36.7	14.1	3.4	20.3	100.0
	도지역	2014	33.9	36.9	11.4	2.8	15.0	100.0
		2016	19.7	41.7	14.6	2.3	21.8	100.0
소득계층	저소득층	2014	37.7	39.3	11.8	2.7	8.5	100.0
		2016	33.9	39.5	11.7	1.4	13.4	100.0
	중소득층	2014	28.2	44.0	14.7	3.3	9.8	100.0
		2016	23.8	41.8	14.1	2.0	18.4	100.0
	고소득층	2014	19.1	41.2	20.4	4.8	14.5	100.0
		2016	15.2	40.4	16.5	2.6	25.3	100.0

주1 : 주거비 부담정도는 현재주택에 대한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 부담정도를 의미

주2 : '해당없음'은 대출금이 없어 대출금 상환 부담이 없는 가구를 의미함

자료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7. 정책평가 및 정책수요

주거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

○ 전체가구의 주거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2016년 '필요하다'는 의견이 39.5%로 2014년 47.0%보다 감소함

– 지역별로 수도권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44.9%로 광역시(34.7%), 도지역(34.5%)보다 높았음

– 소득계층별로는 저·중소득층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41.7%, 41.1%로 고소득층(32.3%)에 비해 높았음

– 점유형태별로는 자가가구보다 임차가구에서 주거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특히 보증금 있는 월세의 주거지원 필요성이 60.8%로 높게 나타났음

표 Ⅱ-21. 주거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

(단위 : %)

구분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계
전체		2014	47.0	53.0	100.0
		2016	39.5	60.5	100.0
지역	수도권	2014	50.8	49.2	100.0
		2016	44.9	55.1	100.0
	광역시	2014	43.0	57.0	100.0
		2016	34.7	65.3	100.0
	도지역	2014	43.5	56.5	100.0
		2016	34.5	65.5	100.0
소득계층	저소득층	2014	49.4	50.6	100.0
		2016	41.7	58.3	100.0
	중소득층	2014	49.0	51.0	100.0
		2016	41.1	58.9	100.0
	고소득층	2014	37.3	62.7	100.0
		2016	32.3	67.7	100.0
점유형태	자가	2014	33.7	66.3	100.0
		2016	27.1	72.9	100.0
	전세	2014	59.3	40.7	100.0
		2016	55.4	44.6	100.0
	보증금 있는 월세	2014	66.4	33.6	100.0
		2016	60.8	39.2	100.0
	보증금 없는 월세	2014	69.9	30.1	100.0
		2016	52.9	47.1	100.0
	무상	2014	46.8	53.2	100.0
		2016	35.8	64.2	100.0

주 : 일세, 사글세 또는 연세는 보증금 없는 월세에 포함하여 분석함
자료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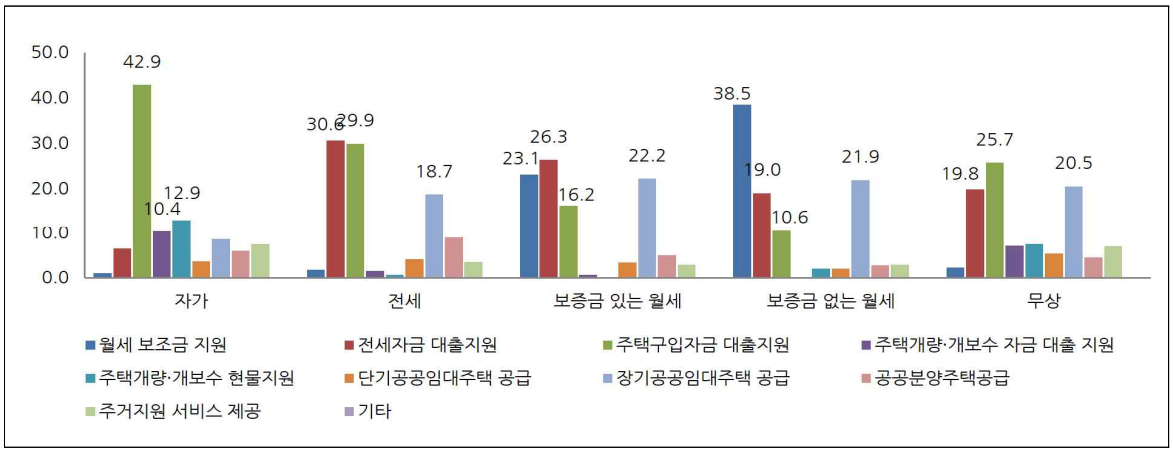
○ 주거지원이 필요하다는 가구를 대상으로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조사한 결과, '주택 구입 자금 대출지원'이 29.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전세자금 대출지원' 19.0%, '장기공공임대주택공급' 16.1% 순으로 나타남

- 소득계층별로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은 저소득층에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중·고소득층에서 '주택 구입자금 대출 지원'으로 나타남

- 점유형태별로는 자가의 경우 '주택 구입자금 대출 지원',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가구의 경우 '전세자금 대출지원' 보증금 없는 월세가구의 경우 '월세 보조금 지원'이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으로 조사됨

그림 Ⅱ-21.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

(단위 : %)



자료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2016

표 Ⅱ-22.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1순위)

(단위 : %)

구분			월세 보조금 지원	전세자금 대출지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	주택개량·개보수 자금 대출 지원	주택개량·개보수 현물지원	단기공공임대주택 공급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공공분양 주택공급	주거지원 서비스 제공	기타	계
전체		2014	6.5	19.1	31.5	5.6	6.6	3.8	16.3	5.8	4.8	0.2	100.0
		2016	9.8	19.0	29.7	4.9	5.6	3.7	16.1	6.2	5.0	0.0	100.0
지역	수도권	2014	7.2	23.2	31.3	4.7	3.1	3.8	16.6	6.5	3.3	0.3	100.0
		2016	10.4	23.4	27.9	4.1	2.9	2.5	18.3	7.0	3.4	0.0	100.0
	광역시	2014	7.9	14.0	33.1	5.5	5.9	6.1	17.4	6.2	3.9	0.0	100.0
		2016	10.2	14.1	34.0	3.3	3.7	11.5	14.6	5.8	2.8	-	100.0
	도지역	2014	4.3	14.9	30.8	7.3	13.4	2.1	14.9	4.1	8.0	0.1	100.0
		2016	8.4	13.4	30.4	7.3	12.2	1.2	12.7	4.8	9.6	-	100.0
소득계층	저소득층	2014	11.6	18.2	17.2	5.2	10.6	3.2	22.5	4.8	6.7	0.0	100.0
		2016	17.2	19.1	14.0	5.4	7.6	3.5	21.2	5.2	6.7	0.1	100.0
	중소득층	2014	4.1	21.2	37.7	5.1	3.9	4.4	13.3	6.4	3.6	0.2	100.0
		2016	5.0	20.0	38.5	4.3	3.7	3.9	13.2	7.6	3.8	-	100.0
	고소득층	2014	1.2	14.1	48.4	7.9	5.7	2.7	9.6	6.1	3.6	0.6	100.0
		2016	1.8	16.1	49.9	4.9	4.8	3.8	9.5	5.5	3.6	-	100.0
점유형태	자가	2014	0.5	4.4	41.4	12.4	15.0	2.5	8.5	6.1	8.8	0.4	100.0
		2016	1.0	6.6	42.9	10.4	12.9	3.7	8.7	6.1	7.6	0.1	100.0
	전세	2014	1.7	28.8	34.5	1.8	1.7	4.0	18.0	7.4	2.1	0.1	100.0
		2016	1.8	30.6	29.9	1.5	0.6	4.2	18.7	9.1	3.5	-	100.0
	보증금 있는 월세	2014	17.0	28.7	18.4	0.4	0.6	5.2	24.0	4.1	1.6	-	100.0
		2016	23.1	26.3	16.2	0.7	0.2	3.4	22.2	5.0	2.9	-	100.0
	보증금 없는 월세	2014	15.4	30.4	14.4	1.4	1.1	3.7	25.4	4.7	3.5	0.0	100.0
		2016	38.5	19.0	10.6	0.2	2.1	2.1	21.9	2.8	2.9	-	100.0
	무상	2014	5.1	15.4	32.3	6.0	7.4	2.6	13.6	6.8	9.8	1.0	100.0
		2016	2.3	19.8	25.7	7.2	7.5	5.4	20.5	4.5	7.1	-	100.0

주1 :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구만을 대상으로 조사함
주2 : 일세, 사글세 또는 연세는 보증금 없는 월세에 포함하여 분석함
자료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8. 주거 및 주거환경

1) 주택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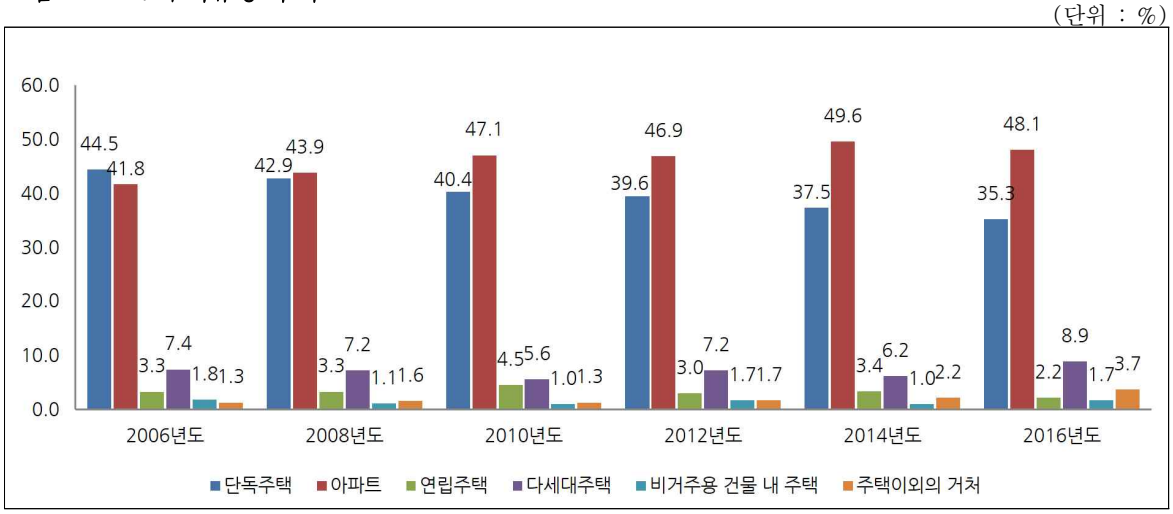
○ 전체가구의 주택유형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 비율은 전반적으로 증가함

※ 단독주택 비율 : (2006년) 44.5% → (2008년) 42.9% → (2010년) 40.4% → (2012년) 39.6% → (2014년) 37.5% → (2016년) 35.3%

※ 아파트 비율 : (2006년) 41.8% → (2008년) 43.9% → (2010년) 47.1% → (2012년) 46.9% → (2014년) 49.6% → (2016년) 48.1%

그림 Ⅱ-22. 주택유형 추이

(단위 : %)



자료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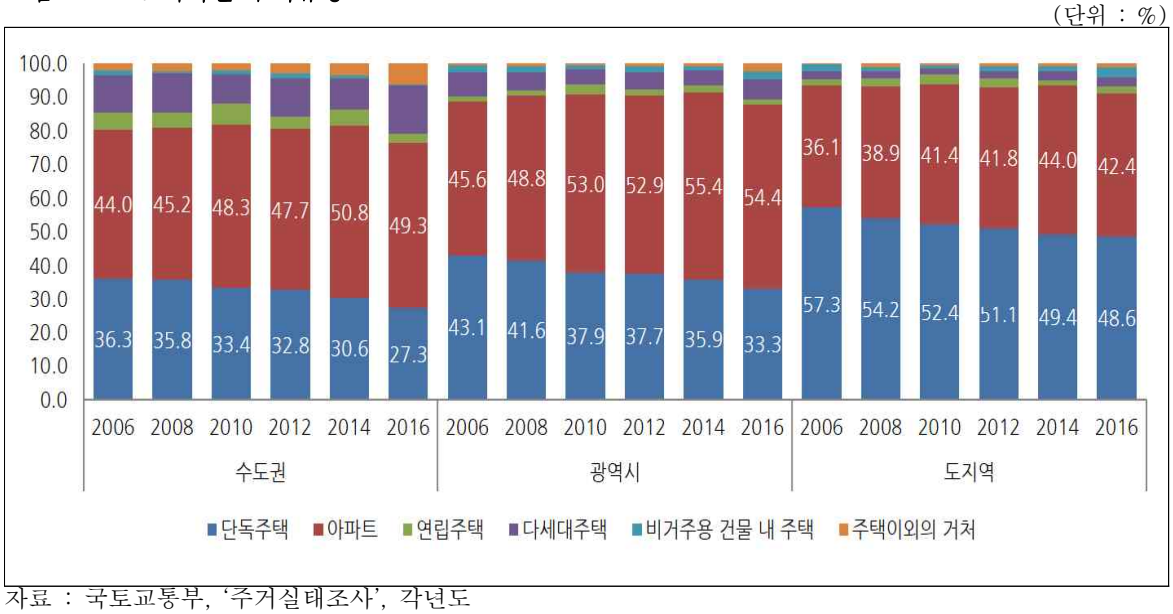
○ 지역별 단독주택 거주가구의 비율은 도지역, 광역시, 수도권 순으로 높게 나타나며, 아파트 거주가구의 비율은 광역시, 수도권, 도지역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또한, 주택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는데 이는 오피스텔 거주가구 비율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임

– 지역별로 주택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 비율을 비교해 보면 수도권의 상승폭(2014년 3.6% → 2016년 6.1%)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그림 Ⅱ-23. 지역별 주택유형

(단위 : %)



자료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표 Ⅱ-23. 지역별 주택유형

(단위 : %)

구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주택이외의 거처	계
전국	2006	44.5	41.8	3.3	7.4	1.8	1.3	100.0
	2008	42.9	43.9	3.3	7.2	1.1	1.6	100.0
	2010	40.4	47.1	4.5	5.6	1.0	1.3	100.0
	2012	39.6	46.9	3.0	7.2	1.7	1.7	100.0
	2014	37.5	49.6	3.4	6.2	1.0	2.2	100.0
	2016	35.3	48.1	2.2	8.9	1.7	3.7	100.0
수도권	2006	36.3	44.0	5.1	11.0	1.5	2.2	100.0
	2008	35.8	45.2	4.5	11.5	0.7	2.4	100.0
	2010	33.4	48.3	6.4	8.7	1.1	2.2	100.0
	2012	32.8	47.7	3.7	11.4	1.6	2.8	100.0
	2014	30.6	50.8	5.0	9.3	0.8	3.6	100.0
	2016	27.3	49.3	2.6	14.2	0.5	6.1	100.0
광역시	2006	43.1	45.6	1.5	7.3	1.8	0.7	100.0
	2008	41.6	48.8	1.7	5.4	1.7	0.7	100.0
	2010	37.9	53.0	2.8	4.5	1.2	0.6	100.0
	2012	37.7	52.9	1.7	5.2	1.7	0.8	100.0
	2014	35.9	55.4	2.1	4.6	1.2	0.9	100.0
	2016	33.3	54.4	1.5	6.1	2.4	2.2	100.0
도지역	2006	57.3	36.1	2.0	2.2	2.2	0.4	100.0
	2008	54.2	38.9	2.5	2.0	1.3	1.1	100.0
	2010	52.4	41.4	2.9	1.7	1.0	0.6	100.0
	2012	51.1	41.8	2.7	2.0	1.6	0.8	100.0
	2014	49.4	44.0	1.7	2.6	1.3	1.0	100.0
	2016	48.6	42.4	2.1	2.7	3.1	1.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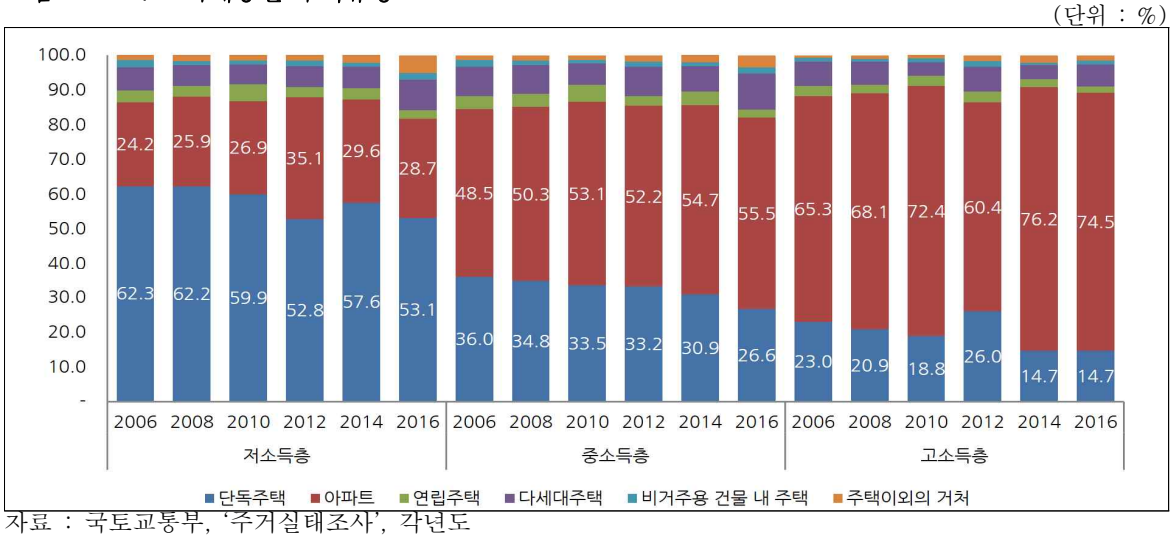
자료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 소득계층별 주택유형을 살펴보면 저소득층일수록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고 고소득층일수록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음

– 2016년 현재 저소득층이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은 53.1%,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은 28.7%인 반면, 고소득층이 단독주택 거주하는 비율은 14.7%,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은 74.5%로 나타남

그림 Ⅱ-24. 소득계층별 주택유형

(단위 : %)



자료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표 Ⅱ-24. 소득계층별 주택유형

(단위 : %)

구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주택이외의 거처	계
저소득층	2006	62.3	24.2	3.4	6.6	2.1	1.5	100.0
	2008	62.2	25.9	3.0	6.1	1.1	1.8	100.0
	2010	59.9	26.9	4.9	5.6	1.1	1.7	100.0
	2012	52.8	35.1	2.9	6.1	1.5	1.7	100.0
	2014	57.6	29.6	3.3	6.1	1.2	2.3	100.0
	2016	53.1	28.7	2.4	8.8	1.9	5.1	100.0
중소득층	2006	36.0	48.5	3.8	8.4	1.9	1.4	100.0
	2008	34.8	50.3	3.7	8.3	1.3	1.6	100.0
	2010	33.5	53.1	4.9	6.2	1.0	1.2	100.0
	2012	33.2	52.2	2.9	8.3	1.6	1.8	100.0
	2014	30.9	54.7	4.0	7.2	1.1	2.2	100.0
	2016	26.6	55.5	2.3	10.3	1.8	3.5	100.0
고소득층	2006	23.0	65.3	2.8	7.1	1.0	0.8	100.0
	2008	20.9	68.1	2.5	6.6	0.9	1.0	100.0
	2010	18.8	72.4	2.8	4.0	1.1	1.0	100.0
	2012	26.0	60.4	3.2	7.0	1.7	1.7	100.0
	2014	14.7	76.2	2.2	4.0	0.7	2.2	100.0
	2016	14.7	74.5	1.8	6.4	1.1	1.4	100.0

자료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2) 현재주택 상태

○ 개별 가구를 대상으로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불량 또는 양호 정도를 질문한 결과, 대부분의 항목에서 3점 이상(4점 만점)으로 조사되어, 거주하는 주택의 상태를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그러나 방음상태의 경우 2.79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층간소음 등 주택 내에서 느끼는 소음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임

○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주택상태가 광역시, 도지역에 비해 대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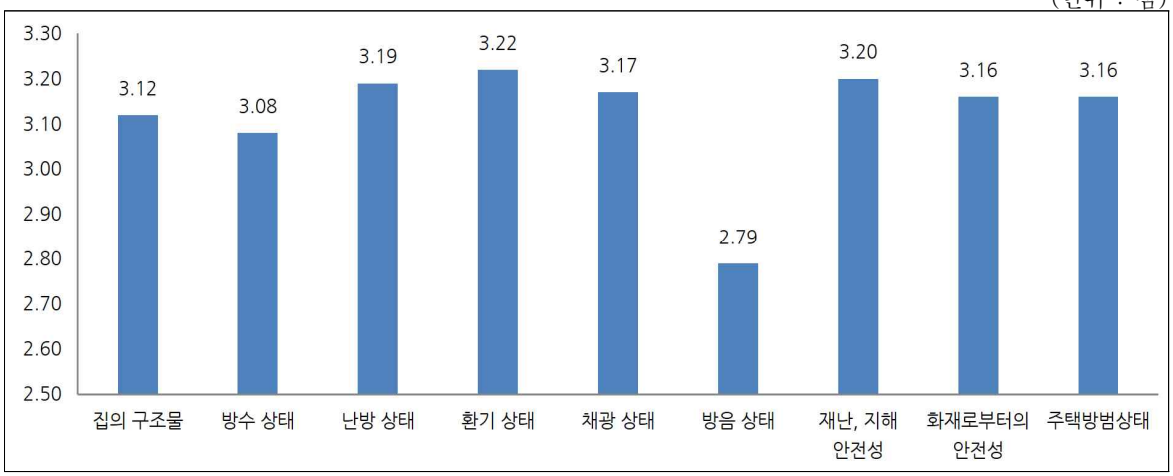
– 채광상태, 방음상태, 재난·재해 안전성은 도지역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소득계층별로는 고소득층에서 주택상태에 대해 양호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다른 소득계층 보다 높게 나타남

○ 점유형태별로 주택상태는 자가가 임차보다 주택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차가구 중에서는 전세의 주택상태가 대체적으로 다른 임차유형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보임

그림 Ⅱ-25. 현재주택 상태(양호도, 4점척도)

(단위 : 점)



자료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2016

표 Ⅱ-25. 현재주택 상태(양호도)

(단위 : 점)

구분			집의 구조물	방수 상태	난방 상태	환기 상태	채광 상태	방음 상태	재난, 재해 안전성	화재로부터의 안전성	주택방범 상태
전체		2014	3.11	3.02	3.17	3.20	3.16	2.69	3.14	3.04	-
		2016	3.12	3.08	3.19	3.22	3.17	2.79	3.20	3.16	3.16
지역	수도권	2014	3.09	3.03	3.20	3.18	3.14	2.65	3.13	3.05	-
		2016	3.15	3.12	3.24	3.22	3.17	2.73	3.19	3.17	3.15
	광역시	2014	3.17	3.06	3.17	3.19	3.12	2.70	3.15	3.06	-
		2016	3.10	3.09	3.14	3.20	3.16	2.80	3.18	3.15	3.14
	도지역	2014	3.09	2.99	3.14	3.24	3.21	2.76	3.15	3.00	-
		2016	3.08	3.03	3.15	3.22	3.20	2.87	3.22	3.16	3.18
소득계층	저소득층	2014	2.93	2.83	2.99	3.03	2.99	2.67	2.99	2.87	-
		2016	2.96	2.91	3.03	3.06	3.01	2.71	3.06	3.02	3.02
	중소득층	2014	3.15	3.08	3.22	3.24	3.19	2.66	3.18	3.07	-
		2016	3.18	3.15	3.25	3.27	3.23	2.79	3.24	3.21	3.20
	고소득층	2014	3.35	3.26	3.40	3.44	3.41	2.83	3.35	3.26	-
		2016	3.35	3.33	3.40	3.44	3.41	2.94	3.40	3.37	3.37
점유형태	자 가	2014	3.17	3.11	3.24	3.32	3.28	2.79	3.22	3.12	-
		2016	3.17	3.15	3.25	3.33	3.30	2.87	3.26	3.23	3.23
	전 세	2014	3.07	3.00	3.14	3.14	3.10	2.62	3.09	2.98	-
		2016	3.10	3.03	3.16	3.13	3.09	2.67	3.15	3.10	3.08
	보증금 있는 월세	2014	3.06	2.91	3.09	3.01	2.95	2.54	3.04	2.92	-
		2016	3.10	3.03	3.13	3.06	2.99	2.69	3.13	3.10	3.07
	보증금 없는 월세	2014	2.75	2.63	2.80	2.80	2.72	2.50	2.85	2.70	-
		2016	2.80	2.76	2.84	2.80	2.70	2.47	2.96	2.85	2.89
	무 상	2014	2.92	2.83	2.99	3.08	3.07	2.66	3.01	2.92	-
		2016	2.90	2.91	3.05	3.10	3.06	2.75	3.06	3.04	3.06
주택유형	단독주택	2014	2.92	2.83	2.97	2.99	2.95	2.78	2.97	2.82	-
		2016	2.94	2.89	2.99	3.02	2.96	2.81	3.03	2.99	2.97
	아파트	2014	3.27	3.19	3.35	3.40	3.36	2.67	3.30	3.24	-
		2016	3.29	3.26	3.36	3.41	3.39	2.81	3.37	3.34	3.34
	연립주택	2014	2.90	2.76	3.04	3.06	2.96	2.50	2.96	2.79	-
		2016	2.89	2.84	3.01	3.06	2.96	2.57	2.96	2.88	2.90
	다세대주택	2014	2.99	2.87	3.09	3.04	2.92	2.49	2.99	2.86	-
		2016	2.93	2.89	3.09	3.01	2.92	2.58	2.99	2.94	2.95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2014	3.03	3.00	3.01	3.08	3.00	2.78	3.00	2.84	-
		2016	2.79	2.76	2.91	3.01	3.07	2.86	3.01	2.96	2.95
	주택이외의 거처	2014	3.38	3.30	3.27	3.02	3.08	2.61	3.16	3.06	-
		2016	3.39	3.42	3.43	3.22	3.23	2.90	3.37	3.32	3.38

주1 : 현재주택 상태는 1에 가까울수록 매우 불량, 4에 가까울수록 매우 양호를 의미함

주2 : 일세, 사글세 또는 연세는 보증금 없는 월세에 포함하여 분석함

자료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년도